

요절복통

여래네 집

#35. 유년일기③ <알람시계>



언제 들어도 여래는 엄마, 아빠의 어린시절 얘기가 재미있습디다.

와, 보리 너도 성공했구나. 풍선껌 들고 있구나.

아빠 어렸을 땐 껌이 귀해서 밑알을 입에 넣고 씹으며 껌처럼 즐겼었지. 단맛은 없었겠네요.

단맛만 없는게 아니라 끈기도 없고 사실 좀 그랬어. 크오

하지만 굳것질 거리가 귀하던 그 시절엔 그런 모든 게 큰 재미였대요.

아카시아 꽃, 펄기, 흙, 머루, 다래, 오디, 진짜 안 먹어본 게 없어. 난 도시에서 자라 그런 건 잘 모르고 눈은 날 눈데다 시름을 넣고 먹다 들켜서 혼난 기억은 있는데...

엄마도 개국은 데가 있었나봐요? 뭐 꼭 그렇다기보다 그 시절 아이들은 다 그랬어.

이모는 안 그랬을 것 같은데.

사실 엄마는 이모와는 다르게 엉뚱한 데가 많고 말도 되게 안 들어였대요, 33화에서도 밝혔듯이 특히 아침마다 일어나는 게 가장 큰 문제였지요.

초롱아, 빨리 못 일어나니! 너 지꾸 이러면 앞으로는 학교 늦던 말던 안 깨워준다.

이응, 알았어요 알았대니까요.

입으로만 알았다고 그러지 말고 빨랑 못 일어나!! 에이 참, 졸려 죽겠는데...

애가 어따대고 엄마한테 말버릇이! 죄송해요, 엄마. 너무 졸려서 그랬어요 앞으로는 더이상 엄마를 귀찮게 안할게요.

그리고 결혼 상대자도 제가 고를게요.

이건 또 무슨 소리?

그래서 생각해 낸 게 알람시계였대요.

알람시계가 삼천원이나니까 그동안 모아놓은 용돈과 할아버지께 조금만 보태달라고 하면 되겠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와, 샀다. 이것만 있으면 내일 아침부터는...

하지만 다들 경험이 있으시죠?

아웅, 내가 너무 시간을 일찍 맞춰 놔놨다봐 끄고 조금만 더 자자.

알람시계가 있어도 늦기는 마찬가지

초롱아, 언니는 벌써 학교 갔다. 아고 늦었다. 학교 다녀 오겠습니다. 예그, 내가 못살아.

해서 엄마가 독한 마음을 먹고 더 이른 시간에 알람을 맞춰 놓았대요, 그랬더니 다음날.

아이고 시끄러워, 멧신데 알람소리지? 애중봐, 아직 동도 안됐구면.

더욱 우스운건 은석구가 알람소리에 깨서 난리를 치뤄도 정작 엄마는 너무 이른시간이라 그 소리를 못 듣고 자고 있었다는 거죠.

어이구, 웬수. 푸아 푸아

이런 일이 몇번 되풀이되자 결국은

맞아, 나도 일찍 깨는 바람에 학교에서 얼마나 졸았는지 알아? 그래라, 그게 좋겠지.

초롱아, 엄마가 다시 깨워줄테니 그냥 알람 맞춰 놓지마라.

거금 3천원이나 주고 산 알람시계는 애물단지가 되고 말은 거지요.

아까와라. 내 거금 3천원

웁지, 반값이라도 받고 식구들에게 팔면 안될까?

하지만 대부분 식구들 반응은 냉담했어요.

노우.

엄마는 그런거 없어도 잘 일어나는대.

늦으면 잠이 없는 뱀어.

그저 마음 약한 아버만이 마지못해 작은 딸의 소원을 들어줬을 뿐.

나도 실은 이런거 필요 없는데...

아잉, 아빠, 나는 둘밖에 없는 딸중에 하나밖에 없는 적은 딸이잖아요.

하여간 재는 어디서 이상한 말 갖다붙이는데 선수라니까.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 한 두가지씩은 있으시죠?

우습지?

그래도 너들은 늦잠 자면 안돼!

늦잠도 유전인가? 아침엔 늘 졸려.

미감인데 그만들 좀 자고 일 해야지!

추워서 잠이 안깨요. 겨울이잖아요. 겨울(아직 아닌가?)

개구리, 곰, 뱀들은 모두모두 내 친구.

**이주일의 화두**

비록 먼 곳에 떨어져 있다 해도 마음이 서로 통하면 그 사람과 언젠가 그대 마음속엔... - 유방호영 -

天氣福

**화제의 신간** 백초스님의 **다라니방편부** 신묘부주밀법총해

귀신이 붙었든, 조상이 달이 났든, 인간에게 그 어떤 고통을 안겨주는 부정하고 사악한 기운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속히 제거해야만 뜻대로 생활할 수가 있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누구나 그러기를 원한다. 하지만 요즘 귀신이나 잡귀들은 예전의 방식대로 부적이나 비방법을 쓰면 잘 내쳐지지 않는다. 귀신도 피가 많아지고 약삭빨라져 간악해졌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한 신력과 벽사 방법으로 다루어야만 확실하게 퇴치할 수 있다.

이 책에 소개된 밀법총해는 티베트교와 일본·중국·한국의 불교와 무교에서 비밀리 사용하는 진언과 부적을 총집결하여 만든 방편부의 총서이다.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양법과 벽사법과 퇴마법 등을 최대한 수집해서 기록하였고, 또 일반 부적으로만 치방이 어려웠던 부분을 강력한 神力을 합일시켜 소원하는 일들을 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방법론까지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일반적인 부적책이 아닙니다!**  
**옛날부터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남이 알려주지 않는 비법이라는 방편법을 방편물과 방편을 하는 법들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著者 白超 백초스님  
 특수양장본 / 타블로이드판 257×364 / 536쪽 / 정가 380,000원

금강주술방편연구회  
 02)6015-6332/010-2002-6332

입금계좌 (예금주: 임현주)  
 농협 023-02-500940  
 신한 010-6413-4443